

# 익산 신청사 행정절차 마무리 내년 착공

## 다목적홀·시민회의실, 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 설치

익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익산시는 청사부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 8일 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최근에는 전북도에 의뢰한 지방

재정투자심사에 최종 통과했다. 신청사는 연면적 3만9,271㎡, 지하 1층-10층 규모로 건립되며 주차장은 청사부지 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504대, 2청사 부지에 280여대 규모의 주차 빌딩을 건립해 총 780여대의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사 지상공간에는 시민의 휴식과 다양한 여가선용에 활용할 수 있는 열린시민광장 등을 조성하고 청사 내에는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홀과 시민회

의실, 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020년 신청사 건립 실시계획을 거쳐 공사에 착수해 2023년까지는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LH와 함께 시가 소유한 공유지인 옛 경찰서와 상하수도사업단 등에 대한 수익모델 개발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청사 건립을 위해 청사건립기금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현재 기금은 올해 100억 원을 추가 적립해 약 200억 원 가량이 적립돼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 익산시는 신청사를 단순한 행정업무만을 보는 관청 개념을 넘어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건립하기 위해 설계과정에서도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청사 건립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익산=정인천 기자

# 군산시, 시민참여위원회 발대식 개최

## 30명 역량강화 워크숍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는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 대한 다양한 논의 끝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8일 시에 따르면 3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겸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시민참여를 위한 준비단계로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시민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제1기 군산시시민참여위원회는 다양한 계층 참여확대를 위해 청소년을 포함해 청년부터 여성, 장애인, 다문화, 노인계층 등을 포함해 구성했다.

이 날 행사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위원회 구성 경과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 외부강사를 통한 시민참여위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진행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시민참여위원회가 시민이 주체적으로 집행하고 평가하는 시민참여의 전국적인 참 모델이 되길 바란다"며 "여기 계



군산시는 지난 8일 3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겸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신 위원분들이 성숙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앞으로 군산시시민참여위원회는 시정발전 및 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자문을 비롯해 시민이 청구한 토론 등의 실시여부 결정, 시정추진과 관련한 각종 시민의견 수렴 청구로써의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행평가단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위원은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시민주도의 혁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방향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을 담당하며, 특히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행평가단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위원은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시민주도의 혁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방향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김장철 맞아 식품 제조업소 대상 위생 점검

군산시는 김장철을 대비해 오는 22일까지 김장관련 식품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위생 점검은 김치류, 고춧가루, 젓갈류 제조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등

총 78개소를 대상으로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시설·설비 기준 적합 여부 ▲사용원료 및 보관 관리의 적절성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공실 등 청결관리 ▲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여부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시행여부 등이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고춧가루, 김치류, 젓갈류 등을 수거해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의뢰해 안전성 검사도 병행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 저소득층 부부 '사랑의 합동결혼식'

### 익산시, 비용 전액 지원

익산시는 지난 9일 원광보건대학교 WM관 컨벤션홀에서 가족과 하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 부부 3쌍의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가족에게 결혼식을 올려 행복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가정문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최한 익산시는 결혼예복과 한복대여, 예식, 사진촬영 등 예식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했고 여러 단체의 후원도 이어졌다.

원광보건대학교 WM관, 웨스턴 라이프호텔 웨딩부 밀라노 오, 주얼러스 S·디루체,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익산다에로타리클럽은 예식장소와 메이크업, 후원물품 등을 지원했다.

백준흠 원광보건대학교 총장이 주례를 맡았고 시립합창단은 아름다운 축가로 선사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오늘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신부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응원한다"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확인한 만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인천 기자

## 익산역 유라시아 거점역 선정 기념행사

KTX 익산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확산되면서 지역에서 다양한 관련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8일 웨스턴라이프호텔 그랜드볼룸 홀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이춘석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기원행사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미나를 통한 익산역의 국제철도 거점역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기념식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하고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식전행사로 진행된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선정 기원 사진전에서는 익산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사진을 통해 익산역사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1부 행사는 거점역 선정 염원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꿈을 현실로, 익산에서 유라시아까지'라는 미래비전을 선포해 앞으로 대륙철도 거점역을 향해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모든 시민들은 거점역 기원 세리머니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선정을 염원했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김시곤 교수(대한교통학회)가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지정 및 구축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국제철도 익산 출발역의 위상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유라시아 시대 익산 광역권 발전구상'의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창은 교수(한국교통대학교)는 익산역 선상역사 복합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군산시, 수출시장 저변 확대 '농식품 수출전략 설명회'

군산시는 지역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바이어를 초청해 농식품 수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농수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의 농식품 시장 동향, 수출준비 절차 등을 공유하며 군산지역 농식품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어울림, 풍년보리원, 더드림, 더미들레, 군산하늘팻기영농조합, 엘림식품, 서해푸드, 화우당, 농부의식품공장, 늘솜시루, 아리물수산, 밥강도 등 관내 12개 업체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바이어와 1대1 상담을 통해 제품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에서는 모시 잎떡, 장아찌, 막걸리 키트, 박대, 간

장게장 등이 바이어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W울타리볼 이주영 부사장이 수출 전략 등을 설명하고, 직접 제품 상담과 업체를 방문해 관내업체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는 "이번 설명회가 미국 시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바이어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맞는 상품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영업 농산물유통과장은 "향후에도 지역내 식품업체들의 실질적인 수출 준비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수출 전략 설명회를 마련하는 등 농식품 수출 유망업체 육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의장 조규대)는 지난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이어진 제22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해 익산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부당한 부분 지적과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대안 제시에 힘썼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경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추진 및 시책반영 여부에 대해, 김충영 의원이 익산시 자전거

정책과 관련하여, 최중오 의원이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익산시 자체 추진 방안에 대해, 이순주 의원이 여성성화관 주차장 불면 및 익산의 여성친화정책에 대해, 한동원 의원이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임형택 의원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및 공영화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익산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